익산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박차

임신 초기 검사 등 건강한 출산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
맞벌이·다자녀 부모 양육부담 완화 다양한 육아 서비스도

익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임신과 출산 과정을 비롯해 맞춤형 육아 서비스 등을 추진해 양육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초기검사와 엽산제, 철분제를 지급하고 스케일링과 잇솔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임신 24주 이상 여성에게는 개인 당 26만원의 건강관리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분만예정일에 임박했거나 출산 후 30일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등을 지원한다.

빈혈과 저체중 등의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 식품도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가정이며 월 1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감자와 당근, 검정콩 등 각종 보충영양식품을 지급하고 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만 44세 이하 부부에게만 지원하던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난 7월부터 연령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도 늘렸다.

시는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와 다자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교육지식과 양육경험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도 운영한다.

2가정 이상이 한 그룹으로 구성돼 등·하원을 지원하거나 육아정보 교환, 놀이·체험학습 공유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고 전문화된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임신에서 출산, 보육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순창군, 전 군민 '안전보험' 들었다

총 14개 항목 최대 1200만원까지 보장

순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해 군민 보호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총 14개 보장내용으로 보장항목마다 보장금액이 최대 1200만원까지다. 가입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전입 인구 또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생명 및 상해와 직결된 보험 가입은 자전거 보험 가입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보험제도의 보장내용이 14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안전보험제도를 운영 중인 도내 지자체는 총 14곳 중 7곳이다.

전북 지역 타 지자체 안전보험제도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보장항목별로 보장금액이 600만~2000만원으로 그중 대다수 지자체가 보장금액이 최대 1000만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보장하는 순창군 안전보험제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높은 혜택을 군민들에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군이 가입한 보장항목 또한 14개로 도내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학생들에게 통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우려해 스쿨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부상비용을 지원하는 보장내용도 포함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보장에도 신경 썼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불의의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지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했다"면서 "다양한 보장내용을 토대로 군민들이 사고 발생 시 1차적 안전망이 되도록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남원시 노봉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지난 28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문화복지 분야에서 '혼불아리랑(물박놀이)'을 선보여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한 노봉마을 주민들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노봉마을이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노봉마을은 지난 28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문화복지 분야에서 혼불아리랑(물박놀이)을 선보였다.

지난달 4일 전북도 생생마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전북 대표로 출전한 노봉마을은 체험소득, 경관환경, 문화복지, 아름다운농촌 등 4개 분야에서 경쟁한 결과 혼불아리랑을 주제로한 문화복지 분야에서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결과는 노봉마을 주민들이 2013년부터 복사꽃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지정, 향토산업마을, 아름다운농촌가꾸기, 소설 '혼불'을 주제로 한 '효원이 시집가는 날' 농촌축제 등 다양한 마을 사업을 진행한 덕분이다.

그동안 마을 노인들은 매주 화요일 마을회관에 모여 혼불아리랑 노래를 연습했다.

한남수 노봉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행복해 하는 일인 만큼 내년에 다시 한 번 출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혼불아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관광객을 위해 정기적 공연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추진해 남원다운 농촌과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군산사랑상품권' 모바일로도 출시

'지역 상품권 착' 앱 스마트폰 설치 구매 가능

군산시가 발행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이 2일부터 모바일으로도 출시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결제수단 다양화를 통해 상품권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됐다.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과 병행해 발행되며 합산 개인별 7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모바일 앱 '지역 상품권 착(CHAK)'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계좌 연결이나 무통장입금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 가맹점에서 QR코드로 결제된다.

군산지역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은 대상 8399개소 가운데 4900개소(58%)가 등록됐으며, 본격적으로 상품권이 유통되면 가맹점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정읍 전통음악 '수제천' 화려한 선율 감상하세요

5~6일 학술세미나·정기연주회 개최
'수제천 의미와 계승' 등 주제발표도

정읍시는 전통음악인 '수제천(壽齊天)'을 감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수제천 학술 세미나 및 정기연주회'〈포스터〉를 5~6일 정읍에서 연다고 밝혔다.

수제천은 정읍이라는 지역명을 가진 유일한 전통 기악곡이다.

정읍사의 반주 음악으로서 선율이 아름답고 웅장해 궁중음악인 아악 중 백미로 알려져 있다.

수명이 하늘처럼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의 제목을 가진 이 음악은 궁중의례와 연향에 사용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김영운 한양대 교수의 '정읍 수제천, 그 곡의 변천 과정', 신은주 전북대 교수의 '지역문화 속에서 수제천의 의미와 계승', 문숙희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연구원의 '무고와 정읍 수제천'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진다.

정기연주회는 화려한 수제천의 선율을 즐기는 기회다.

해금과 인도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편곡한 춘향가 쑥대머리, 헝가리의 대표적인 민속악기와 우리 음악의 협주도 감상할 수 있다.

수제천보존회는 1996년 수제천 연주 교실을 시작으로 현재 정기연주회와 국제민족음악교류제, 전국 각지 초청공연,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공연, 동학기념제, 정읍사 문화제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환경보전 중요성 알린다

초등생 등 군민 대상 연중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

고창군은 '환경보호는 현장에서'라는 주제로 군민들을 대상으로 연중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고창군에 따르면 현장견학은 지난 28일 고창초등학교 환경동아리 학생들과 환경보전협의회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이번 견학은 일상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군민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생활쓰레기 감량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현장은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을 견학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시설임을 깨닫고 환경의 소중함과 생활쓰레기 감량의 필요성을 체감하길 기대한다"며 "생태환경수도 고창의 위상에 걸맞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좋음.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병원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근린시설 전남 목포시 명륜동 토지 1131㎡(342.128평) 건물 : 7617.71㎡(2304.367평)
지하3층 지상8층 **감정가 : 54억6천5백만원 최저가 : (70%) 38억2천5백5십만원**

근린주택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지상2층 **감정가 :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 (70%) 3억2천3백5십만원**

다가구(원룸등)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용리 토지 : 1582㎡(478.6평) 건물 : 298.92㎡(90.4평)
창고, 공장, 근린시설 적합 **감정가 : 3억6천1백만원 최저가 : (56%) 2억 2백2십만원**

다가구(원룸등) 광주 북구 풍향동 767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70%) 4억7천4백만원**

주 택 광주 남구 백운동 토지 : 225.5㎡(68.214평) 건물 : 243.77㎡(73.74평)
감정가 : 3억1백3십만원 최저가 : 3억1백3십만원

아파트 광주 서구 금호동 쌍용예가 55평형 **감정가 : 8억3천5백만원 최저가 : (70%) 5억8천4백5십만원**

아파트 광주 서구 풍암동 에스케이뷰 56평형 **감정가 : 8억2천만원 최저가 : (70%) 5억7천4백만원**

오피스텔 광주 서구 치평동 로잔티움파크 78평형 **감정가 : 4억4천1백만원 최저가 : (70%)3억 8백7십만원**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